

2019년 11월 1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(044-201-2551), 황성철 사무관(2555) / 제공일: 11월 11일(총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경남 창녕(우포늪)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인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경상남도 창녕군(우포늪)에서 11.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, 11.1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-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,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.
- 또한,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 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,
 - 그물망, 울타리, 전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,
 -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
 -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
 - 매일 축사 내·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
 - 축사별 장화(신발) 갈아신기
 -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